

사회

‘아내 토막살해’ 자살 기도 경찰 결국 숨져

사라진 前妻 피살여부 미궁

경찰 허술한 유치인관리 때문... 재발 방지 대책 시급

‘경찰 간부 아내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김모(57) 경위가 자살을 시도해 뇌사상태에 빠진 지 8일 만에 숨졌다. 이에 따라 행방불명된 피의자 전처(前妻)의 소재와 공범 여부 등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문점들도 사실상 미제사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김 경위의 시신을 병원에 의료연구용으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경위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2~3일 내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 경위의 사망으로 20여년 전 행방불명된 김 경위의 전처 문모(53)씨의 소재 확인과 공범 여부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실체 규명이 불가능해졌다.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 경위가 지난 20일 자살을 시도한 서부서 유치장은 사고 이후로도 유치인들의 자해를 방지할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사고 재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청은 조만간 유치장 근무자들의 과실 및 징계 여부 등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남대 교수 용역비 도둑질

어업피해 조사비 부풀려 1억 ‘꿀꺽’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빼돌린 국립대 교수 2명과 허위도 보상을 청구한 어민 등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49) 교수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어업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면서도 허위로 보상을 받아왔던 어민 김모(45)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이 교수는 지난 2008년 1월~10월에 연구 보조원과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출장조사서를 작성해 어민 등을 챙기고 연구용역비를 2중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女승객 살해 택시기사 무기징역

광주지법 “압수 규정 어긴 증거물도 증거능력 인정”

경찰이 범행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 규정을 어겼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8일 “여성 승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5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씨 측은 경찰이 김씨를 긴급체포하면서 피해자의 피가 묻은 장갑, 갈래 등을 압수했지만, 체포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수집의 위법성이 크지 않은 데다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거스르는 결과를 부를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 모교 험담하다니”

고교생 11명 패싸움

순천경찰은 28일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패싸움을 벌인 순천 모 고교 김모(17·1년)군 등 순천과 여수지역 고등학교 11명을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불집자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순천지역 A중학교와 B중학교 출신인 이들은 지난 27일 밤 9시50분경 순천시 조곡동 죽도봉 공원에서 각각 5명과 6명으로 나뉘어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10월에 시작하는 5개월 완성 프로젝트 10월 신규반 특설, 상위권반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통쾌한 편입성공 9월에 시작하라! 34년 연속 대학편입 합격자수 1위 김영민 편입학원 개강 1차 10월 1일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개강 2차 10월 4일



생명존중탑 제막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남대병원 100주년 기념탑’ 제막식이 28일 오전 병원 입구 ‘생명존중탑’ 앞에서 김윤수 전남대총장과 김영진 전남대병원장 등 대학 및 병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역민에 봉사하는 병원”

전남대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다채 “아시아 최첨단 병원 되도록 노력” 다짐

전남대학교 병원은 28일 동구 학동 의과대학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직원과 각계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하고 지역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전남대병원은 기념식에 앞서 학동 본원 입구에서 100주년 기념탑 제막식을 했다. 이 기념탑은 전남대 김대길 교수가 제작한 높이 6.2m, 지름 3m의 조형물로 100년을 뒤돌아보고 미래로 도약한다는 의미에서 12마리의 학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30일에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아시아 문화 축제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대병원은 지난 1940년에 발간된 ‘전남도립 광주의원’ 연보 기증식을 가졌다. 이 연보는 1937년부터 1942년까지 광주의원 원장으로 근무했던 시라베 라이스케(調來助) 원장의 딸인 시라베 초코(調朝子) 씨가 보관해오다가 이날 개원 100주년을 맞아 전남대병원에 기증한 것이다. 이 연보는 전남대병원의 기원일과 수 있는 1910년 광주지해 의원으로 개원할 때부터 1939년 도립 광주의원까지의 임원 및 외래환자 통계, 수입액은 물론 일본인 의사들의 병원생활, 당시 의료현실 등이 기술돼 우리나라 의료사 자료로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활용 행정·진료 서비스

전남대병원, 지방국립대 최초 ‘유비쿼터스 병원’ 시스템 구축

전남대병원이 지방 국립대병원 중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행정업무 및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다. 28일 KT 광주법인사업단에 따르면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을 통합한 스마트폰 기반의 ‘유비쿼터스 병원(U-Hospital)’을 구현,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진료 기록을 보며 응급조치와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남대병원 원은 전체 의료진에게 애플사의

아이폰(올해 600대, 내년 1600대)을 보급할 계획이다. 유비쿼터스가 구축되면 전남대병원은 아이폰 기반의 의료정보 솔루션을 통해 환자정보 조회, 환자 모니터링, 의료영상 이미지 조회 등 의료진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병원 업무를 볼 수 있다. 건강검진 등 진료 결과 조회는 물론 병실에 구축된 IP-TV와 연계해 병실 회선시 환자에게 영상 자

료를 직접 제공하며 진료·처방이 가능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행정업무에도 적용돼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업무 공유와 신속한 업무 처리 등으로 병원행정 서비스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KT와 전남대병원은 이날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U-Hospital’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원침 (8129) 김중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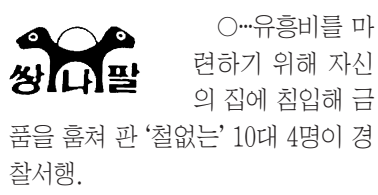


해남군수 선거법 위반 수사

전남경찰

경찰이 해남군수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8일 6·2 지방선거 당시 해남군수 선거에서 금품살포 등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관 4명을 해남으로 보내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6·2 선거에서 현 군수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정 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해남지역 면책입자 등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선거를 앞두고 면지역 책임자에게 60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구속된 민주당 해남지역 당직자 문모(53)씨와 이번 진정건의 연관성을 캐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유혹비 쓰러 친구들과 자기집 털어



○유혹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판 ‘철없는’ 10대 4명이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고교 이모(17·1년)군 등 4명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7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모 아파트 이군의 집 안방에서 어머니(38)의 순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군 등은 집에서 들고나온 금품을 PC방에서 훔친 지갑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금문방에 판매했는데, 경찰에서 “금품을 판 돈으로 PC방 등을 함께 다녔다”고 진술.